

코로나19와 재택근무: 가능성 시험을 넘어 새로운 지혜가 필요할 때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재택근무의 확산일 것이다. 그런데 재택근무의 확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배태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재택근무가 얼마나 보편적인 근무 방식이었던가는 국가별로 산업구조와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변화 정도도 각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대응 양상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재택근무가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재택근무가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식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노동브리프』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재택근무와 관련한 변화에 대해 미국, 호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과 호주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던 국가들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취업자의 약 20% 정도가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그 비중이 7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에도 2019년에는 취업자 중 25.5%가 노동시간의 일부를 재택으로 근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00년 5월에는 취업자의 31%가 매일 재택근무를 하였고 17%는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재택근무 활용률이 비교적 낮았다. 코로나19

로 인한 봉쇄 명령으로 재택근무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17년 7%에 불과하던 재택근무자가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에는 40%까지 증가하였다. 세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와 비교하여 2차·3차 유행 시기에는 재택근무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조정과정은 재택근무가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재택근무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택근무가 직무몰입도, 생산성, 정신건강,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긍·부정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일하는 장소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업무와 사적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생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과 호주의 사례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재택근무로 인한 디지털 번아웃, 직무 열의와モチベーション 감소 등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가져온 부정적 영향들이 주로 보고된 미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재택근무 여부와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재택근무의 효과에 관한 혼재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프랑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재택근무가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이 재택근무자의 노동환경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돌봄기관이 문을 닫았던 기간에 이러한 양상은 극대화되었다. 특히 일·생활 갈등은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기반한 재택근무로 인한 성별 불평등 심화는 재택근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가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통신설비 수준, 일과 개인생활의 분리를 가능케 하는 주거지 내 업무공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또한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코로나19의 4차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이 이루어지자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보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고용과 경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대응책의 하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확산이 이루어져 그 경험이 약 17개월 동안 쌓였고, 이러한 변화의 관성에 의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새로운 표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재택근무에 관한 원칙을 재확립하고 재택근무가 업무성과와 노동자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더 나은 업무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택근무가 효율적인 근무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재택근무자에 대한 성과 평가와 보상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재택근무가 야기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재택근무자에 대한 낙인 효과는 재택근무자가 업무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자의 경우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일·생활 분리의 어려움으로 시간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재택근무자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적절한 평가 시스템 개발을 서두른 하이테크 기업들과 재택근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휴무일을 지정해 재택근무자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도모한 일부 기업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또한,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방안에 관해 어떠한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고용노동부의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지난해 4월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장기적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재택근무 관련 법적 틀을 마련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산업 단체협약과 국가 보건위기 대응 프로토콜 등 연성법을 통해 보완했는데, 이번 기획특집 「코로나19와 프랑스의 재택근무」에서는 프랑스의 재택근무 관련 규정 변화와 그 의의가 무엇인지, 또 재택근무 시행의 정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 우리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수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기능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재택근무 경험자 대부분이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기획특집을 통해 재택근무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하기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